

# ‘사드 역풍’ 광주 대 중국 수출 휘청

### 1분기 전년비 32% ↓...주 품목 자동차·가전 줄어 적자

### 화학 등 원자재 수출 비중 큰 전남은 오히려 39% 늘어

광주의 대중국 수출이 올해 1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는 등 광주의 수출 구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풍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 등 원자재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전남의 경우, 정치·사회적 영향 없이 수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동차와 가전 등 완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광주는 외부 상황에 따라 대중국 수출액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경우 장기적인 무역 흑자를 위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과 협력업체들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광주전남연구원 아시아연구센터

가 발간한 ‘아시아뉴스 통(通)’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2% 줄어든 1억83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2만 7000달러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광주는 주로 자동차, 냉장고 등 가전 등을 중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사드 논란 탓에 이들 제품의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5%에 불과해 중국이 문을 걸어잠그면 수출액 비중이 더 급감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이 적다 보니, 몇 개 품목의 수출길이 끊기면 무역수지가 급방 적자로 돌아선

다는 뜻이다. 반면, 전남의 경우에는 사드 역풍에도 되레 수출액이 늘었다.

전남은 이 기간 수출액이 38.7%로 증가했는데, 이는 석유와 제조품, 집적회로 등 다른 제품의 원자재가 되는 수출품이 많은 덕분이었다.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중국의 업체들이 전남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사드의 영향이 적었다.

실제, 올해 1분기 중국으로의 석유제품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국으로 수출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출량은 2248만1000 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2191만 배럴)보다 2.6% 늘었다.

중국이 석유제품 수입을 늘리는 것은 강화된 항 함유량 기준에 맞는 석유제품에 대한 자국 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

다. 하지만 농수산물 수출 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중국 농식품 수출통관 거부사례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 식품은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출업체에서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성별로 통관검역 수준이 강화된 여파로 분석하고 있다.

홍영성 광주전남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광주·전남의 경우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중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남 지역의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들의 대중국 수출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342.93 (+25.59)
-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1)
- ↓ 코스닥 643.02 (-3.02)
- ↓ 환율 (USD) 1116.50원 (-10.30)



##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김구 메달’ 출시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일지’ 출간 70주년을 맞아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김구 기념메달’을 출시했다.

기념메달은 ▲31.1g 금메달 ▲31.1g 은메달 ▲1kg 은메달 등 3종류로 구성됐으며 모두 99.9% 순금과 순은으로 제작됐다. 각각 31.1g 금메달 370장, 31.1g 은메달 970장, 1kg 은메달 170장으로 한정 수량 출시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메달 뒷면에는 백범일지 출간 70주년

을 의미하는 ‘70’을 배경으로 김구 선생이 평소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서산대사의 ‘답설가(踏雪歌)’가 그 해석과 함께 선생의 옥필체로 재현되어 있다.

판매가격은 31.1g 금메달이 319만원, 1kg 은메달은 198만원, 31.1g 은메달은 14만3000원이다. 오는 6월2일까지 국민·농협·신한은행 및 우체국 전국 지점 그리고 공식 판매권자인 풍산화동양행(02-3471-4586~7)에서 선착순 예약접수를 받는다. /김대성기자bigkim@

# 상장 한계기업 빛 53조원 ‘한국경제 시한폭탄’

### 232곳 임직원만 10만여명

### 3년세 빛 1.4배 증가

### 무너지면 ‘제2 대우해양조선’

부채가 많은 한계기업이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아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매출이 많고 고용 직원이 많은 상장 한계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위험이 커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계기업 3278개 중 비교적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장기업은 232개였다.

한계기업은 금융당국이 기업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상장 한계기업의 매출액 합계는 71조 3545억원이었다. 당시 한국 국내총생산(GDP) 1565조원의 4.6%에 달하는 규모다.

이 상장 한계기업이 고용한 직원 수는 정규직 9만2000명, 기간제 5285명 등 9만 6018명에 달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대우조선해양이었다. 2015년 기준 매출액은 13조 3663억원, 임직원은 1만3199명이었다.

매출액 1조원이 넘는 상장 한계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13개사였다. 1000억~1조원 사이는 53개사였다.

임직원이 1000명이 넘는 곳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15개, 100~1000명은 124개사였다.

상장 한계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이 5.3개사가 있는 셈이었다. 임직원 수로는 7.3개사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하지만 빛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2년 38억4조원이었던 상장 한계기업의 신용공여액(대출·지급보증 등 빛)은 2015

년 53조5천억원으로 약 1.4배 불어났다.

상장 한계기업은 기업 개수로는 전체의 7%에 불과했지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45%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상장 한계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가계부채와 마찬가지로 기업부채도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계기업

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의 화약고로 되지 않도록 별도의 채무관리방안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한계기업 관리 방안과 대책을 물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싱글족 겨냥 냉장고도 1인용 25일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슬림 T타입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슬림 T타입 냉장고는 기존 ‘T9000’보다 폭 11cm, 깊이 19cm를 줄여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디자인했다.

25일 삼성전자 모델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슬림 T타입 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슬림 T타입 냉장고는 기존 ‘T9000’보다 폭 11cm, 깊이 19cm를 줄여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에서 사용하기 좋도록 디자인했다.

〈삼성전자 제공〉

## 벤츠 코리아 7월18일까지 무상점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4일부터 7월 18일까지 8주 동안 전국 51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을 비롯한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차량 무상점검을 받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 순정 부품(소모품 및 컬렉션은 제외)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컴비네이션 필터, 에어 필터, 와이퍼

블레이드와 시계 등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의 일부 제품, 내비게이션 맵 업데이트 등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캠페인 플러스 패키지, 워런티 플러스 등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2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 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

캠페인 기간 서비스센터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며 메르세데스-마이바흐 W240 차량(2015년 이전 등록)은 캠페인 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LH 고흥 남계택지개발지구 29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정기)는 고흥 남계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등 29필지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흥 남계지구는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공암리 일원으로 전체 14만㎡에 수용인구 2000여 명으로 계획돼 있다. 고흥읍 남서측에 위치해 국도 27호선에 연

접하고 있어 전남 동부권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나다. 점포 겸용 단독필지 12필지는 점포를 포함해 5가구 이하 건설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광주전남본부 토지판매부(062-360-317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성기자bigkim@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죽전문점, 대형천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경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피부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경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000만원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3100만원

문의 **010-9203-6161**